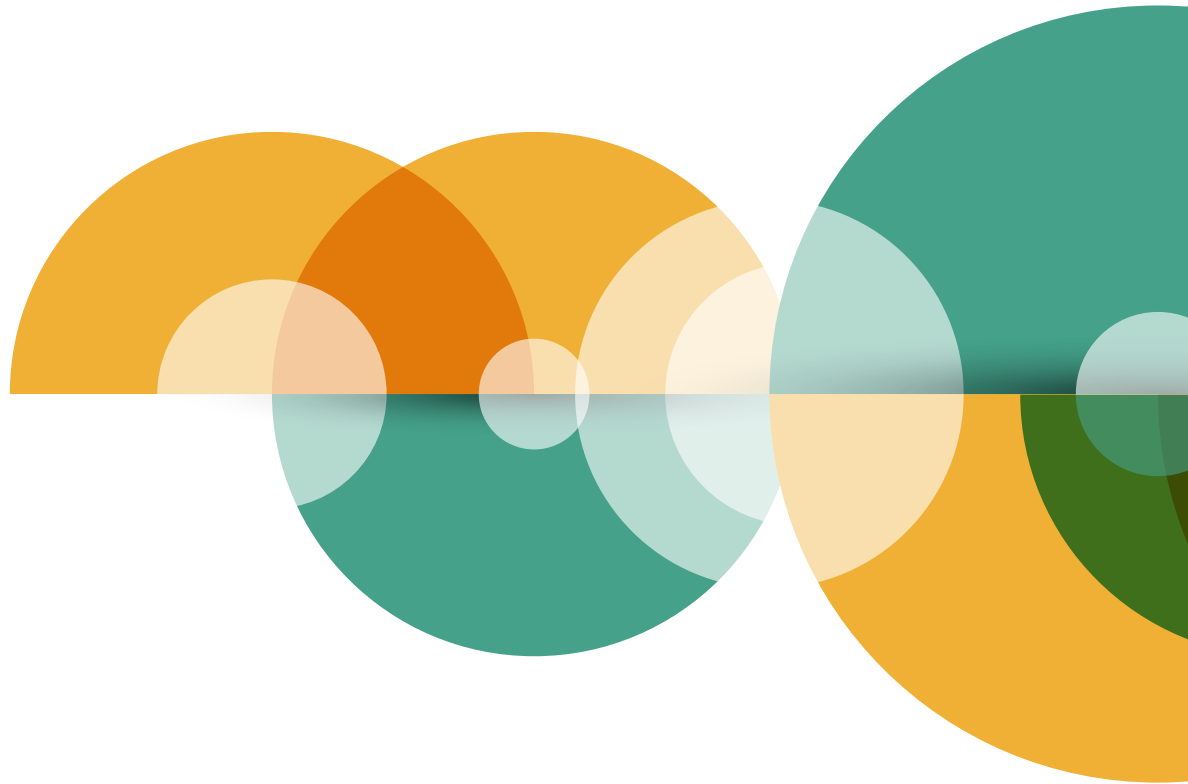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준비된 가벼운 청년 창업을 위하여

책임작성 | 강재원 창업벤처연구실장(02-707-9853, jwkang@kosi.re.kr)  
권재한 선임연구원(02-707-8239, jhkwon@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http://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1. 청년세대 현황
2. 청년 창업 현황
3.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 요약

-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취업난과 그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 중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가중되었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증가
  -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
- 본고는 청년 창업 현황을 바탕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의 실제 창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 청년 창업은 시장 진입·퇴출이 쉬운 생계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청년 창업은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 대리·중개·도급업, 소매업의 비중이 높으며, 기술기반업종 창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청년세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으며, 창업 시 자금확보에 대한 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세대의 부족한 창업 준비 기간과 창업 교육 경험은 미흡한 경제적 성과로 귀결됨

- 29세 이하의 창업 준비 기간이 가장 짧았고, 창업 교육 경험도 부족함
- 대학 창업 강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론·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학생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 대비 미흡

■ 본고는 상기 청년 창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청년 창업 정책 방향을 제시

- (준비된 창업 유도) 대학은 창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실패용인 문화조성) 나의 실패를 공유하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조성
- (창업경험 경력인정) 창업 리스크 축소를 위해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청년정책 간 연계) 청년 창업 정책은 다부처 청년 정책과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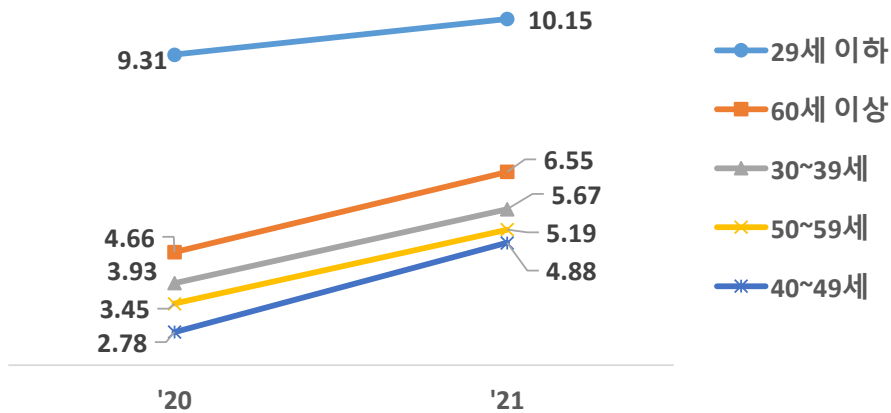


# 1. 청년세대 현황

■ 전 연령대 중 29세 이하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가장 심각하며, 실업이 주요 요인임

- 연령대별 경제고통지수<sup>1)</sup>는 29세 이하 > 60세 이상 > 30대 > 50대 > 40대 순이며, 29세 이하의 경우 40대의 2배에 달함

[그림 1] 연령대별 경제고통지수



주 : '19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어 '20년부터 경제고통지수 산출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물가조사) 원자료 저자 가공

- 최근 5년간 29세 이하의 체감실업률은 23% 수준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30대의 체감실업률은 지속적 상승

<표 1>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9세 이하	22.67	22.78	22.95	25.12	23.11
30대	8.46	8.82	8.89	10.72	10.90
40대	6.72	7.47	7.86	9.25	9.12
50대	7.98	8.50	8.72	11.34	10.82
60세 이상	12.84	13.88	13.51	14.73	14.94
전체	11.00	11.58	11.76	13.61	13.26

주 : 체감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 사용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경제활동인구조사)

1)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합.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가중되었으며, 아예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sup>2)</sup> 증가

- 최근 3년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지속적 하락 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취업률 : 67.7%('18) → 67.1%('19) → 65.1%('20)
- 특히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현장실습이 중요한 전문대 학생들의 경험 부족 문제 심각(유채연, 2022)
  - 2020년 1,323개였던 전문대 원격강좌 수가 2021년 89,533개로 급증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 '20년 29세 이하 니트족이 435,887명(최근 5년간 최고치)으로 전년 대비 84,981명 증가하였다가 '21년 405,334명으로 감소였으나, '19년 대비 54,428명 증가함

〈표 2〉 국내 니트족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9세 이하	289.5 (49.6)	306.5 (49.6)	350.9 (48.0)	435.9 (47.2)	405.3 (42.9)
30대	145.7 (25.0)	146.6 (23.7)	174.2 (23.8)	211.7 (22.9)	242.0 (25.6)
40대	94.1 (16.1)	98.3 (15.9)	118.7 (16.2)	165.3 (17.9)	169.4 (17.9)
50대	40.6 (7.0)	52.6 (8.5)	67.9 (9.3)	87.0 (9.4)	91.6 (9.7)
60세 이상	13.3 (2.3)	14.1 (2.3)	18.7 (2.6)	24.2 (2.6)	36.9 (3.9)
합계	583.1 (100.0)	618.1 (100.0)	730.5 (100.0)	924.1 (100.0)	945.2 (100.0)

주 : 니트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이고 쉬었음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경제활동인구조사)

2) 국내 니트족은 OECD와는 달리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 또는 진한 준비, 군입대 대기 등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자를 니트족으로 규정 (현대경제연구원, 2021)

-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관계부처 합동, 2022)
  - 재학생 취업 지원·일 경험 기회 제공 확대 및 구직포기자 전용 서비스 제공
  - 학자금 대출금리 우대·지원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설
  
- 한편 청년들의 강한 자아실현 욕구 성향과 취업난이 맞물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던 중 최근 감소 기류가 감지됨
  - 2019~2020년 창업을 고려한 청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2018년 수준으로 감소

〈표 3〉 청년 창업 고려·경험 여부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창업 고려	실제 창업	12.7	5.7	12.2	9.0	7.0
	창업 미실행	35.8	22.7	25.3	25.9	21.9
창업 미고려		51.5	71.6	62.5	65.2	71.0

주 : '17~'19년 조사대상은 만15~39세(중고등학생 제외), '20년 이후는 만18~34세임.  
 자료 : 김기현·배정희(2021).

- 본고는 청년 창업 현황을 바탕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의 실제 창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시

## 2. 청년 창업 현황

### 가. 창·폐업률

■ 청년 창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타 세대 대비 시장 진입과 퇴출이 모두 활발하여 기업 역동성이 높다는 점임

- 특히 29세 이하의 기업 역동성은 71.4로 30대(41.5)의 1.7배, 40대(28.2)의 2.5배에 달함

〈표 4〉 2020년 연령대별 기업 역동성

(단위: 천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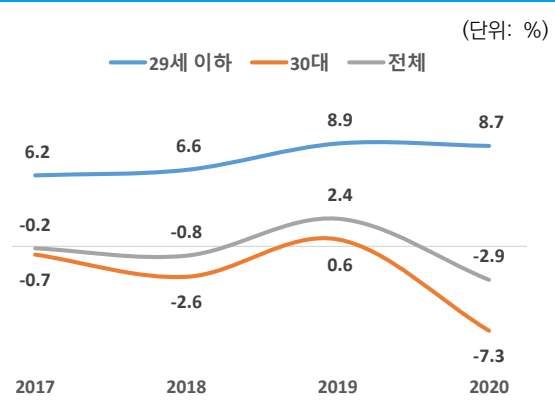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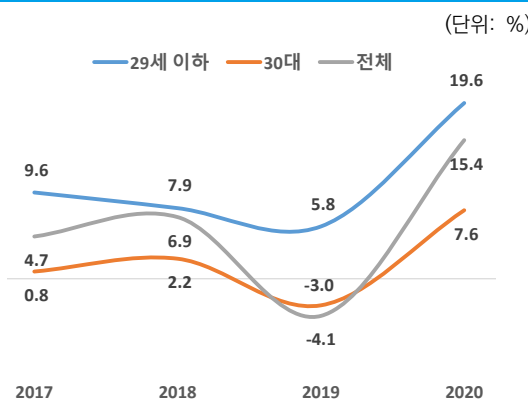
구분	신규사업자 (A)	가동사업자 (B)	폐업사업자 (C)	창업률 (D=A/B)	폐업률 (E=C/(B+C))	기업 역동성 (D+E)
29세 이하	176.9	335.9	77.7	52.6	18.8	71.4
30대	321.4	1,117.7	164.0	28.8	12.8	41.5
40대	401.2	2,129.4	221.0	18.8	9.4	28.2
50대	372.0	2,640.5	232.9	14.1	8.1	22.2
60세 이상	246.7	2,414.8	199.0	10.2	7.6	17.8
합계	1,518.1	8,638.4	894.6	17.6	9.4	27.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데이터 저자 가공

- 2016~2020년 29세 이하 창업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폐업 역시 동반 증가  
- 반면 2020년 30대 폐업사업자는 7.3% 감소(29세 이하는 8.7% 증가)

[그림 5] 연령대별 신규사업자 증가율

[그림 6] 연령대별 폐업사업자 증가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데이터 저자 가공



■ 청년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술기반업종<sup>3)</sup>의 비중은 감소

-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 대리·중개·도급업, 소매업의 청년 창업률이 높음
  - 폐업률 상위 3개 업종: 음식업(15.3%), 대리·중개·도급업(14.7%), 소매업(14.3%)
  - 29세 이하 창업률 상위 3개 업종: 소매업(65.0%), 서비스업(52.9%), 대리·중개·도급업(50.1%)
  - 30대 창업률 상위 3개 업종: 부동산매매업(39.6%), 소매업(38.2%), 음식업(29.7%)

〈표 5〉 2020년 업종별 청년 창·폐업률

(단위: %)

구분	29세 이하		30세~39세		전체	
	창업률	폐업률	창업률	폐업률	창업률	폐업률
건설업	37.1	11.6	23.4	9.3	13.8	7.7
광업	16.7	0.0	11.9	3.4	5.8	6.8
농·임·어업	35.3	7.9	20.9	6.2	13.2	6.0
대리·중개·도급업	50.1	21.1	25.8	16.0	21.5	14.7
도매업	44.1	16.8	22.8	11.1	12.2	8.2
부동산매매업	46.2	10.8	39.6	9.7	27.4	8.6
부동산임대업	39.8	8.7	27.4	7.7	17.6	6.3
서비스업	52.9	18.2	27.6	12.0	18.5	10.1
소매업	65.0	23.7	38.2	16.6	27.2	14.3
숙박업	40.9	15.5	24.1	13.9	15.6	11.1
운수·창고·통신업	38.0	13.6	20.2	9.9	9.4	7.1
음식업	49.1	19.1	29.7	17.7	21.1	15.3
전기·가스·수도업	32.0	11.2	25.3	11.6	23.5	9.0
제조업	36.9	12.4	18.9	8.7	9.4	6.3
합계	52.6	18.8	28.8	12.8	17.6	9.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데이터 저자 가공

3)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은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임

- 2021년 29세 이하의 기술기반업종 창업 비중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한 15.3%로 전 연령 평균인 16.9%에 못 미쳤으며, 30대의 비중도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감소

〈표 6〉 최근 5년간 업종별 창업 기술기반업종 비중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9세 이하	16.0	16.1	17.0	16.5	15.3
30대	19.5	19.6	21.0	19.1	18.8
40대	17.5	18.0	19.6	17.9	19.7
50대	13.1	13.0	14.6	13.3	15.8
60세 이상	9.7	9.3	10.4	8.9	11.6
합계	15.8	15.8	17.2	15.4	16.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나. 창업 시 애로사항

■ 청년 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확보이며,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까지 생계유지, 아이디어·아이템 부재 순으로 나타남(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0)

- 창업 장애요인 우선순위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 29세 이하는 전 연령대 대비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큰 반면에 창업까지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2018년 연령대별 창업 장애요인

(단위: %)

구분	아이디어, 아이템 부재	자금확보	지식·능력·경험 부족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창업까지 생계유지	기존 직업활동 제한	지인의 만류	일과 가정양립 어려움	기타
29세 이하	13.0	78.1	33.6	44.3	3.0	19.6	0.2	1.5	4.1	0.1
30대	10.3	72.0	29.7	41.0	2.4	26.0	1.1	4.1	4.4	0.4
40대	7.8	70.8	30.7	42.9	3.5	24.1	1.7	3.7	5.3	0.4
50대	9.1	70.1	33.2	41.3	4.7	21.3	1.6	4.1	6.0	0.5
60세 이상	9.4	65.0	34.6	46.2	2.6	22.5	1.1	4.4	6.0	0.8
합계	9.2	70.4	31.9	42.5	3.6	23.2	1.4	3.9	5.4	0.5

주 : 복수응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 29세 이하의 평균 창업 소요 자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전 연령 평균 3억 900만 원에 비해 적으나, 자산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추정

〈표 8〉 2018년 연령대별 평균 창업 소요 자금 및 자산 대비 부채비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평균 소요 자금액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9세 이하	135	26.2
30대	322	25.7
40대	320	22.6
50대	317	18.2
60세 이상	297	12.9
전체	309	18.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9세 이하의 창업 시 정부 지원 이용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으나, 엔젤·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 비중은 높음

- 29세 이하의 정부 출연금·보조금 이용 비중은 각각 0.4%로 전 연령 평균 1.5%에 못 미쳤으며, 정부 용자·보증 이용 비중 역시 0.4%로 전 연령 평균 2.4%에 비해 낮음
- 반면 엔젤·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비중은 5.4%로 전 연령 평균 0.8%에 비해 높음

〈표 9〉 2018년 창업 시 소요 자금 조달 방법

(단위: 백만원, %)

구분	자기자금	개인 간 차용	정부 출연·보조금	정부 용자, 보증	엔젤·벤처 캐피탈 투자	은행, 비은행 대출
29세 이하	96.3	8.0	0.4	0.4	5.4	21.5
30대	91.2	13.6	1.9	3.1	0.7	21.2
40대	94.7	16.3	1.7	2.4	0.5	21.7
50대	94.9	15.6	1.3	2.3	0.5	22.6
60대 이상	93.9	13.9	1.0	2.2	0.7	20.7
합계	94.0	14.9	1.5	2.4	0.8	21.8

주: 복수응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 다. 창업 교육

### ■ 29세 이하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과 부족한 창업 교육 경험은 높은 폐업률로 귀결됨

- 29세 이하의 창업 준비 기간은 전 연령 평균 대비 3.3개월 짧고, 창업 교육 경험 비율 역시 1/3 수준에 불과하며, 폐업률은 18.8%로 전 연령 평균 9.4%의 약 2배 수준임

〈표 10〉 2018년 창업 준비 기간 및 창업 교육 경험

(단위: 개월, %)

구분	창업준비기간	창업교육경험		폐업률
		있음	없음	
29세 이하	6.7	6.7	93.3	18.8
30대	10.6	19.8	80.2	12.8
40대	10.1	17.8	82.2	9.4
50대	9.9	19.6	80.4	8.1
60세 이상	9.9	21.7	78.3	7.6
합계	10.0	18.8	81.2	9.4

주: 폐업률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데이터 저자 가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20),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 ■ 대학 창업 강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론·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짐

- 대학 창업 강좌 수는 최근 5년간 48% 증가하였으나, 실습형 강좌 수 비중은 21% 수준에서 정체 중

〈표 11〉 대학 창업 강좌 현황 I (이론·실습)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론형 강좌 수	8,295 (79)	9,349 (79)	10,734 (77)	11,114 (79)	12,228 (79)
실습형 강좌 수	2,166 (21)	2,479 (21)	3,171 (23)	3,022 (21)	3,234 (21)
합계	10,461 (100)	11,828 (100)	13,905 (100)	14,136 (100)	15,462 (100)

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 대학 창업 강좌는 오프라인 강좌가 대부분이었으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온라인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증가

〈표 12〉 대학 창업 강좌 현황 II (온라인·오프라인)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온라인 강좌 수	365 (3)	749 (6)	722 (5)	724 (5)	7,508 (49)
오프라인 강좌 수	10,096 (97)	11,079 (94)	13,183 (95)	13,412 (95)	7,954 (51)
합계	10,461 (100)	11,828 (100)	13,905 (100)	14,136 (100)	15,462 (100)

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 대학교 창업 지원 서비스 중 물리적 공간 및 전담 직원 수는 증가 중이나 교비와 교원 수는 감소

- 최근 5년간 공간은 54% 전담 직원은 23% 증가하였으나, 교비는 오히려 31% 감소
- 교원 수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표 13〉 대학교 학생 창업 지원 현황

(단위: m<sup>2</sup>, 백만원,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간	148,132	148,994	189,285	193,809	228,417
교비	24,136	33,728	23,129	21,929	16,534
교원 수	537	592	641	629	605
전담직원 수	1,071	1,189	1,199	1,285	1,321

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 라. 성과

■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청년세대의 경영성과가 타 연령대 대비 미흡

- 1981~1997년생의 평균 매출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전 연령 2억 400만 원의 66% 수준이며, 1950년 이전 출생자 1억 5,400만 원보다도 1,900만 원이 적음
- 특히 1981년~1997년생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160만 원으로 생활비<sup>4)</sup>를 충당 하기에조차 부족한 수준임

4) 만30~34세 평균 한 달 생활비는 1,010,464원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13만 원임

- 첫 매출 발생까지 걸린 기간도 1981~1997년생이 가장 길었으며, 평균 2.5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2016년 기준 연령대별 1인 창조기업 창업 후 경영 실적

(단위: 백만원, 개월)

생년 구분	매출		당기순이익		첫 매출 발생 기간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50년 이전	153.6	30	19.4	10	2.1	1
'51~'60년	190.6	60	25.1	15	2.1	1
'61~'70년	244.9	82	30.8	20	2.4	1
'71~'80년	198.9	80	26.5	20	2.2	1
'81~'97년	134.5	50	11.6	12	2.5	1
합계	203.5	70	25.7	15	2.3	1

주1 : 결측치 제외

주2 : 평균값은 각 관측치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한 가중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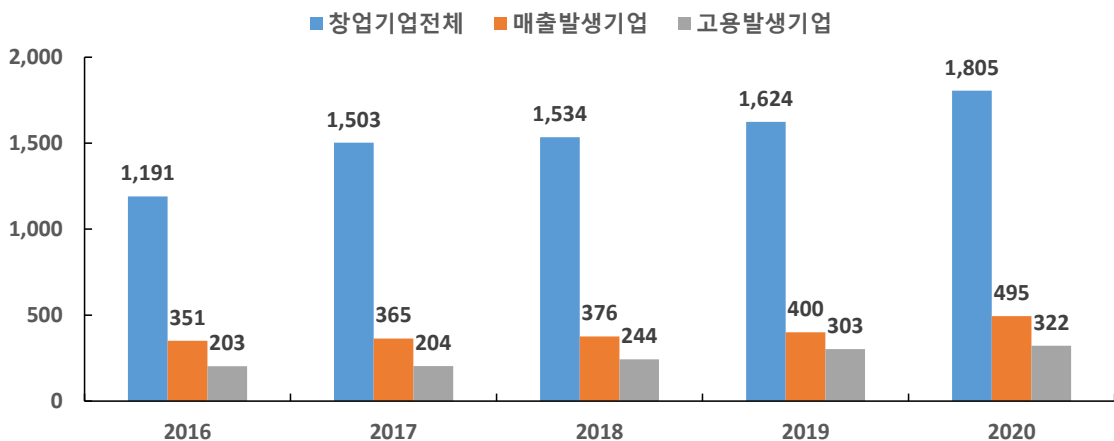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 학생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 대비 미흡

- 최근 5년간 학생 창업 기업 수는 52% 증가하였으나, 매출발생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중 20% 수준에서 정체 중
- 고용발생기업 비율은 매출 발생기업 비율보다 낮은 10%대 수준임

[그림 7] 학생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 재창업 지원을 받은 20대 이하의 비중은 작으나, 상대적으로 고성장·가젤 기업의 비중은 높음

- 재창업 지원기업 실태조사<sup>5)</sup> 결과 연령 기준 20대 이하의 비중은 2%에 불과하나, 지원받은 기업의 6.4%가 고성장기업, 4.3%가 가젤기업으로 나타남

〈표 15〉 2021년 재창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원기업 수	고성장기업 <sup>1)</sup>	가젤기업 <sup>2)</sup>
29세 이하	94(100.0)	6(6.4)	4(4.3)
30대	633(100.0)	20(3.2)	7(1.1)
40대	1,799(100.0)	54(3.0)	22(1.2)
50대	1,695(100.0)	33(2.0)	11(0.7)
60세 이상	402(100.0)	1(0.3)	1(0.3)
전체	4,623(100.0)	114(2.5)	45(1.0)

주1: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주2: 가젤기업은 고성장기업 중 업력 5년 이하인 기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2)

5) 재도약지원자금('10~), 재도전기술개발사업('13~), 재도전성공패키지('15~)사업 지원기업 대상

### 3.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가. 준비된 창업을 유도

##### ■ 대학은 창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대학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창업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강화
  - 교양과목 위주의 국내 대학 창업 교육을 보다 발전시켜 전공 및 융합과목 설치하고, 창업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가<sup>6)</sup>를 적극적으로 창업 교육에 활용(이우진 외, 2013)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으로 구성되는 창업 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sup>7)</sup>과 기회인식<sup>8)</sup>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 (이정란·장규순, 2018)
  - 창업을 희망하나 적절한 아이디어·아이템이 없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0),
  - 아이템 준비를 많이 할수록 창업 이후 성과가 좋음(한향원·하규수, 2020)

##### ■ 물리적 공간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프로그램 전환

-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sup>9)</sup> 중 기술개발 장비 지원, 졸업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법률 자문,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대 수준에 못 미쳐 개선이 필요(김영문·강태균, 2022)
  - 창업 활동 지원금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간 협업 지원은 청년 창업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킴(황보운·김재형, 2016)
- 우수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채용 및 처우 개선 필요
  - 매니저 역량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직접 또는 경영·기술지원 서비스와 연동 되어 입주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임 (박상호·강신철, 2021; 배영임, 2014; 최강득·김영문, 2015)

6) 지인의 창업 성공사례와 창업 교육 경험은 청년 구직자의 창업 의지를 고취 시킴(오희선·하규수, 2021)

7) 스스로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확신(강재하·양동우, 2016)

8) 자원 또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이정란·장규순, 2018)

9)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원서비스, 경영지원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자금지원서비스 유형으로 분류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6> 참조.



■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창업 준비가 잘 된 청년을 선발하여 지원

-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대상 성과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도를 높이고, 창업 성과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재현·남정민, 2020)

나. 실패를 용인하는 창업가 문화기반 확산

■ 창업자의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실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은 성과에 악영향을 끼침(김정현 외, 2022; 한향원·하규수, 2020)

- 창업자의 68%가 경미한 수준 이상의 우울감을 보임(김정현 외, 2022)
  - 우울 수준: 양호(32.1%), 경미(35.4%), 중간(20.7%), 약간 심함(7.4%), 심함(4.4%)
-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창업 준비와 연동(매개·조절 효과)되어 창업자의 성과 만족도를 증가시키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지는 못함(한향원·하규수, 2020)

■ 나의 실패를 공유하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

- (예비)재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창업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57%로 긍정적인 답변 15.9%의 3.5배에 달함(김나라, 2017a)
- 반면 창업 천국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 다브카(Davca)<sup>10)</sup> 문화가 창업 기반을 형성(홍익희, 2021)
  - 창업자들은 ‘페일콘(failcon)’이나 ‘퍽업나이트(FuckUp Nights)’ 등 대규모 모임을 통해 실패의 교훈을 상호 공유
  -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100% 투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법적 의무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개인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10) 다브카는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

■ 재창업기업의 높은 생존율을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이 큰 재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 재창업 지원기업의 생존율은 일반기업 대비 매우 높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22)
  - 재창업 지원기업의 1년 생존율(94.8%), 3년 생존율(77.5%), 5년 생존율(53.6%)은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64.8%), 3년 생존율(44.5%), 5년 생존율(32.1%)에 비해 높음
- 재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으로 나타남
  -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현황조사 결과 애로사항은 자금부족(58.79%) > 채무 미해결(14.62%) > 신용등급 하락(14.51%) > 실패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3.39%) = 실패에 대한 두려움(3.39%) 순으로 나타남(중소기업진흥공단, 2018)
  - IBK설문조사 결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 신용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23.2%) > 폐업사업 관련 정리되지 않은 문제(7.3%) > 실패에 대한 두려움(6.0%) >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차별(4.6%) 순으로 나타남(김나라, 2017a)
- 이스라엘의 경우 재창업 시 성공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첫 창업 대비 20% 추가 지원(김나라, 2017b)<sup>11)</sup>

다. 창업 리스크 축소를 위한 창업 경험의 경력 인정

- 모든 창업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시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개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실태 조사 결과 수입 및 보상 정도,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이승렬 외, 2018)
- 취업을 희망하는 창업 경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업 인사 담당자 사이에 남아 있으나, 창업 동기와 창업자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남(허제인, 2020)

11) 유대인 공동체에는 창업자에게 세 번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두 번 정도 망하면 세 번째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임(홍익희, 2021)

- 인사 담당자는 창업 경험자에 대해 자기주장이 강하고, 근속 기간이 길지 않으며, 회사 연봉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반면 창업자의 기회 포착 및 성취욕 등 창업 동기가 명확하거나, 창업 경험<sup>12)</sup>이 채용 기업의 특성(비전)에 부합할 경우 상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의사를 보임

■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 과거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공헌형 창업자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 부분 취업 시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안에 미반영(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라. 청년 창업 정책의 범부처 청년 정책과 유기적 연계강화

■ 청년 창업 정책은 다부처 청년 정책과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 법률-지자체, 지원사업별 청년의 범위가 상이(부록 <표17> 참조)하여 지원 대상자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므로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창업 정책은 청년 일자리 정책 및 복지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 취업에 실패하여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비자발적 창업의 경우 실패로 귀결되기 쉬우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병행
  - 창업 실패 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재도전을 활성화

12) 미국 사회적 기업인 탐스(TOMS)를 창업한 마이크로스키는 직원 채용 시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선호(김환영, 2015)

## 부록

〈표 16〉 유형별 창업지원 서비스 평가기준 및 측정모형

구성 지표	측정항목	구성 지표	측정항목	구성 지표	측정항목	구성 지표	측정항목
기술 지원 서비스	기술개발	경영 지원 서비스	경영진단	행정 지원 서비스	졸업기업 네트워크	자금 지원 서비스	정책자금정보
	기술이전		사업진도 평가		업무공간 제공		
	디자인 개발		재무세무회계				통신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확장 이전		엔젤클럽정보
	시험검사		아웃소싱		회의실지원		
	개발장비 지원		창업교육		보관시설지원		
	기술개발 자문		법인설립		보안서비스		
	생산공정관리		법률자문		전산시스템		
	지식재산권 취득						
	창업지원 정책						

자료 : 김영문·강태균(2022)

〈표 17〉 청년의 법적 정의

구분	연령 <sup>4)</sup>	
청년기본법 <sup>1)</sup>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sup>2)</sup>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자치법규 (청년기본조례)	서울, 인천, 제주, 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강원, 전북, 전남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sup>3)</sup> , 경남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산	18세 이상 34세 이하
통계청	15세 이상 29세 이하	
행복주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희망적금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농업인육성정책	18세 이상 40세 미만	

주1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주2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주3 : 봉화·예천군의 경우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주4 : 연령은 만 나이 기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 참고자료

### [국내 문헌]

- 강재하·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학회논문지』, 17(1), p493-507.
- 관계부처 합동(202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1),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 김기현·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80-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53.
- 김나라(2017a),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IBK경제연구소.
- 김나라(2017b), 「창업강국의 비결, 용이한 재창업」, IBK 경제브리프.
- 김영문·강태균(2022),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한 창업보육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37(2), p289-316.
- 김재현·남정민(2020),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상인의 기업가정신 및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준비성, 상인과의 협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5), p221-233.
- 김정현·이지혜·오소희·김현지·백소영(2022), 「2022년도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박상호·강신철(2021),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1), p71-85.
- 배영임(2014),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와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p145-155.
- 오희선·하규수(2021), 「청년구직자의 창업 배경과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업가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16(3), p87-103.
- 이승렬·이용관·이상규(2018),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1)-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한국노동연구원.

이우진·김용태·황보운(2013),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미국 5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1), p99-110.

이정란·장규순(2018),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p43-60.

중소기업진흥공단(2018),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중소벤처기업부(2017~2021), 「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2), 「재창업 지원기업 실태조사」.

최강득·김영문(20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이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서비스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8(1), p551-574.

통계청(2018~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2020~2021),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017~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20~2021), 「소비자물가조사」.

한향원·하규수(2020), 「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5(6), p171-1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허제인(2020), 「창업경험자에 대한 기업채용 선호도의 인식조사: 창업경험자와 일반구직자 비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1), p209-224.

현대경제연구원(2021),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

황보운·김재형(2016),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창업보육 지원 서비스 연구」, 『벤처창업연구』, 11(5), p57-66.

#### [인터넷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검색일 : 2022. 4.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검색일 : 2022. 5.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검색일 : 2022. 8.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검색일 : 2022. 5. 2).

#### [기사 인용]

김환영(2015.05.24), 「직원 뽑을 땐 창업 실패자 선호」, 『중앙일보』.

유채연(2022.01.07.), 「전문대 2년 내내 실습도 못하고 졸업이라니...」, 『동아일보』.

홍익희(2021.11.30.), 「실패하면 지원금 20% 더 준다... 창업가 부활의 땅, 이스라엘」, 『조선일보』.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최세경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